

# ‘방역 사각’ 광주·전남 비인가 교육시설 숫자부터 파악하라

교회발 집단 감염 조기 수습 대책은

광주·전남 지자체·교육당국

뒤늦게 현황파악 긴급현장점검

‘대안교육법’ 제도 보완 필요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TCS 국제학교에서 하루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역 내 관련 시설의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관련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1월 27일자 1면〉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산구 TCS국제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점검반을 편성, 이날부터 관련 시설을 찾아 방역 수칙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단 1곳만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전남에는 2곳이 있다.

문제는 종교 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들이다. 일반적으로 선교 관련 대안학교나

일반 대안학교, 또는 학원 등의 형태이지만 방역당국은 각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시설 수나 위치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에 이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와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이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를 포함해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대략 2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도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TCS 관련 교육시설(여수, 순천)을 포함해 17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관명과 운영실태를 각각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인가시설과 비인가 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교교육 시설 집단 감염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가 절실하며,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는 내년에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 전문가들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통한 세부 내용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나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무등산 난개발 막기’ 민·관·정 머리 맞댄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광주일보 1월 25일 7면)가 출범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연립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가 28일 출범한다. 광주시는 지역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등이 민·관·정을 대표한 20여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28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앙파크호텔부지 공유회 방안, 공유회 이후 활용방안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미래의 체육선생님 27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교육학과 정시 실기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축구공 드리블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보복해임 논란 명진고 교사 3월 수업 복귀

학교 측 “지역사회·학부모·학생 소통 못해 잘못”...자문위 발족 계획

광주 명진고(도원학원)이 보복 해임 논란 후 복귀하고 2월 말까지 공공도서관에서 자율연수하도록 한 순군대 교사에 대해 3월 신학기부터 정상 수업에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명진고 교감 직무대행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업무 분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손 교사의 담임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감 직무대행은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 지역 사회와 소통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진고는 이달 말 또는 3월 초 ‘2021 혁신과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 행사’를 할 계획이다.

명진고는 올 상반기에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학교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도시재생 거점 ‘행복어울림센터’ 착공

북구, 전시설·창업보육·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광주시 북구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인 ‘북구행복어울림센터’가 들어선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28일 오후 2시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북구행복어울림센터는 총 9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2250㎡) 규모로 신축되며,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은 전시설·유아놀이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지고, 2층은 다목적강당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3층은 교육실과 회의실, 여성행복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4층과 5층은 창업 보육 공간,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창업과 교류 증

진을 위한 장소로 제공돼 유망 창업아이템이나 창업자를 발굴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더불어 전남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테마거리 가로경관 사업과 삼자공원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 곳곳에 보안등, 범죄예방 CCTV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문인 북구정장은 “뉴딜사업의 핵심 가치가 공동체 회복인 만큼 주민 참여와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해외취업 연수과정 ‘K-Move스쿨’ 최우수 등급

해외취업 연수과정인 조선대학교의 ‘K-Move스쿨’이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19년 K-Move스쿨’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 핵심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K-Move스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구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통해 직무 역량 및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후 미국 등 해외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2개 운영기관과 211개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2019년 K-Move스쿨 4기의 취업률 10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선대는 전남 직원을 채용하여 연수생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진행 중 중도탈락자 및 미수료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